

“섬진강 물난리 조사할 댐관리조사위 공정성 상실”

위원 11명 환경부·수공 용역 참여...분야도 건축·토목 편중
김용 의원 “구성부터 신뢰 잃어...해체하고 감사원 감사해야”

섬진강댐 하류 등 8월 초 물난리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전력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앞서 환경부 주도의 조사위 구성에 대해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을 거느리고도 홍수를 키운 장본인(환경부)의 셉트 조사는 절대 안 된다”며 반발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용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회 정부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단골 인사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현재 22명이다. 공통전문가 7명, 섬진강 댐 분과 7명, 용담·대청댐 분과 6명, 합천·남강댐 분과 4명(2명은 섭외 중) 등이다.
김 의원은 조사위원 중에는 의학박람회와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돼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

가’라는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 토목전문가만 18명으로 다수를 차지, 전문성에 있어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해서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거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용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상실시켰다”며 “조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수해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한산한 ‘국감 국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료 등을 준비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시장 앞 복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좌석 제한 조치 등으로 예년의 비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비례대표 25% 호남 배정 당헌에 넣겠다”

“5·18만연청산 TF도 꾸릴 것”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당 차원에서 ‘5·18 관련 3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내 ‘5·18왜곡망언청산TF’를 꾸리고 이르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비례대표 호남 25% 배정’을 당헌당규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에 제2 지역구를 배정받은 ‘광주 동행 국회의원’들과 광주를 찾았던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우리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망월 묘역을 국립묘지로 만들었으며 기념일도 지정했는데 몇몇 의원들의 망발로 호남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았다”면서 “당내에 5·8왜곡망언청산TF를 만들어 진정성 있는 5·18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당이 ‘과다다’고 지적하고

있는 왜곡에 따른 처벌 규정인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적인 법 조항을 조율할 필요는 있으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에서 밝힌 호남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25% 이상 배정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헌당

규에 이를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을 호남에 제2 지역구 형태로 배정한 ‘광주 동행 국회의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주시·전남도와의 예산정책간담회도 약속했다. 그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광주 시청에서 광주지역 내년 예산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를 전남·북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가하천서 지방·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율 낮아 호우 피해 키울 우려”

이형석 의원 자동화 사업 촉구

국가·지방·소하천 수문 자동화율이 낮아 집중호우 발생 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4%의 수문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 버튼을 조작해 수문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8%는 사람이 수문을 수동으로 개폐하는 수동식이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수문은 18%에 그쳤다.
소하천은 자동수문 설치율은 32%로 나타났다. 지방하천은 수문 자동화율은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전국적으로 개수가 많은 터라 현장에 인력이 출동해야 하는 전통·수동식 수문은 2400여 개가 넘었다. 특히 지방하천 수문 7000여 개 가운데 4300여 개는 올해 호우피해가 속출한 전남 지역에 집중됐다.
이형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화되지 않은 대다수 수문은 사람이 직접 하천 인근에서 개폐 조작을 해야 하는 데다 관리 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뿐 아니라 2020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 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1) ‘테스형’

가히 신드롬이라 할만 했다. 추석 연휴 주인공이었던 나훈아 열풍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단번에 압도했던 것 같다.
뉴스를 보느라 콘서트 전반부를 시청하지 못한 아쉬움은 잠시, 말미에 ‘테스형’을 들으면서 금방 따라 부르게 하는 중독성에 마음이 탈래졌다.
누가 유행가 가사를 통속적이라고 했

유행가에 등장한 철학자, 어색하지가 않네

던가. 유행가에는 사랑과 이별은 물론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가사와 가락에 절절이 담겨있어 우리 마음을 적신다. 어떤 때는 철학적 권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의 통찰을 만나게 된다. 마침내 유행가 제목에 철학자가 등장한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이 왜 이리 힘든지, 세월은 왜 또 저러는지 질문하고 푸념하는 가객의 노래를 떠올리며 그림 속 소크라테스를 소환해본다.
프랑스 혁명시기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1748-1825)의 ‘소크라테스의 죽음’(1787년 작)은 소크라테스의 극적인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을 담은 작품

으로 유명하다. 작품의 소재는 아테네의 신을 모함하고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죄명으로 기소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기 직전의 장면이다. 차분한 색채의 배경과 스승의 죽음을 어찌할 바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탄식하는 극적인 포즈가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면서 죽어가기 전 제자들에게 웅변하고 있고, 그의 발치에 앉아있는 플라톤은 깊은 슬픔을 견디며 오히려 주춤처럼 앉아있다. 플라톤은 턱과 앞의 일치로서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승 소크라테스의 처형으로 큰 상실감을 겪고 아만의 도시 아테네를



다비드 작 ‘소크라테스의 죽음’

떠나게 되는데 아마 그 곁집을 굳히는 순간 같기도 하다.
웅변과 침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림을 다시 보면 소크라테스에게 나도 묻고 싶다. 가객 나훈아처럼 ‘테스형’하고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리 힘든지, 인생이 왜 이리 어려운지를.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세종 파라곤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건설명가의 자부심을 이어갈 준비된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거명품 브랜드 Paragon과 EG the1을 공급해 온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EG건설에서 대한민국 건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십니다.



가족사 : 더블저축은행, 파인스톤CC, 은화심CC, 라인정학재단, 라인문화재단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EG건설 2020년 경력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모집 부문		구분		인원		자격요건	
회계	본사 (서울)	대리 ~ 차장	각 1명	① 상경계열 전공자 중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결산,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유경험자	③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경력자 우대	④ 재무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① 상경계열 전공자 중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경력자 우대
자금				③ 기업 자금관리 및 조달업무 경력자	④ PF 조달 및 관리업무 유경험자 우대	③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경력자 우대	④ PF 조달 및 관리업무 유경험자 우대		
인사총무				① 상경계열, 법학 전공자 중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근무 경력자	③ 전역장교 우대	① 인허가, 분양, 마케팅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주택개발기획 및 사업성분석 등 업무 가능자	③ 개발 사업장 관리 경력자
개발사업				① 도시개발기획, 사업수주, 사업성분석 등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기획 및 설계 검토 및 인허가 등 업무 가능자	③ 개발 사업장 및 조합 관리 경력자	① 정비사업 인허가 및 관리지원 업무 등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조합원 및 조합관리 업무 경력자	③ 분양 및 관리업무 유경험자
도시개발사업				① 부동산 분양, 임대 및 관리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보유자산 개발 및 관리 업무 경력자	③ 부동산 중개 업무 유경험자 우대	① 관련학과 전공자 중 해당 부문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공동주택 사업수입 및 인허가 업무 경력자	③ 평면 및 상품 개발업무 경력자
재개발·재건축	① 하차보수 업무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연차중결합 및 대표회의 관리 업무 유경험자	③ 하차소송 업무 유경험자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건축 등)					
부동산 관리	①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② 공동주택 현장 시공 및 공사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③ 내원형 근무 경력자 우대	④ 재개발 재건축 현장 경력자 우대					
설계	① 하차보수 업무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연차중결합 및 대표회의 관리 업무 유경험자	③ 하차소송 업무 유경험자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건축 등)					
C/S(하차보수)	본사 및 전국	각 1명	차장	① 하차보수 업무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연차중결합 및 대표회의 관리 업무 유경험자	③ 하차소송 업무 유경험자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건축 등)		
건축	공사 현장			①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② 공동주택 현장 시공 및 공사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③ 내원형 근무 경력자 우대	④ 재개발 재건축 현장 경력자 우대		
건축	공사 현장	① 하차보수 업무 실무 경력자(3-15년 경력자 우대)	② 연차중결합 및 대표회의 관리 업무 유경험자	③ 하차소송 업무 유경험자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건축 등)				

- 2. 공통 우대 사항**
 - ▶ 전역장교 우대
 - ▶ 건축부문은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3. 전형방법**
 - ▶ 1차 : 서류 전형
 - ▶ 2차 : 면접 전형 (1차 합격자 대상) / 2차 면접 전형 대상 채용 전 신체검사
-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0. 9. 29일(화) ~ 10. 16일 (금) 18:00
 -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 5. 기타**
 - ▶ 남자의 경우 병역 또는 만년차로써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 철회됩니다.